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구술인물사⑦ / 최 연 불교사회연구원 원장 - 대불련 운동의 새로운 지평

재는 부모 잘만나서 그렇구나

“학창시절은 그다지 어렵게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저에게 절망과 어두움으로 다가왔지만, 제 안에는 그것을 극복하고 개척하고 살려는 밝은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불교를 접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부친의 퇴직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고 형제들은 살아남기 위해 빨방이 흠여졌다.

어릴 때부터 돈을 벌어야 했던 취미인 문예반 활동과 불교학회는 꾸준히 이어갔다. 일련의 활동을 통해 최연은 사회와 소통하려 했고, 그런 활동을 통해 사회의 다양성 속에서 모순점들을 발견하게 됐다. 당시 불교활동을 하면서 정토회를 설립한 법륜 스님과 그의 인연도 소개한다.

“경주에서 수련회를 방학 때마다 합니다. 그 당시 영남불교 중·고등학교 회장을 법륜 스님이 맡았고, 도문 스님이 지도법사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인쇄 중학교 회장이었고, 김천불교학생회 중학교 회장으로 회원들과 참석했습니다.”

당시는 대단했습니다. 불교학생회는 1개였고, 기독교 학생회가 7개 있었습니다. 기독교 학생회는 연합을 하고 불교학생회랑 체육대회를 했는데 우리가 이기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인연도 많았습니다. 당시 직지사예 녹원 스님이 주지스님으로 계셨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고 법일 스님이 저희 지도법사를 맡으면서 아주 키워주셨죠.”

최연은 김천 시내에 위치한 개운사 학생회에서 활동했다. 개운사는 직지사 말사이다. 당시 법륜 스님은 출가하지 않았던 상태였고, 개운사 학생회를 지도했다. 또한 본사인 직지사 주지 녹원 스님이 최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영남의 불교학생회 단체들이 대규모의 수련회를 개최하게 됐다.

“문학적인 소양도 있었고, 중앙대 교수진들이 굉장히 중앙대를 지원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시 분야엔 서정주 선생님, 소설엔 김동래 선생님, 평론에는 백철 선생님이, 민속학 양재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자’ 라고 결심했습니다.”



사진 중앙의 건물지리가 옛 불교학생회가 있던 자리

최연은 당시 예비고사에 이어 본고사를 자신 있게 봤고 중앙대 국문과에 입학했다. 서울로 진출한 최연은 중고등학교 시절은 물론 대학에서도 끊임없이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피력한다.

“그때도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나 과외도 받고 잘 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는데 월사급이며,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자주 ‘재는 부모 잘 만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다 보니 숙명론적이 돼버리는 것 같아, 그런 상황과 생각들을 극복하려 하다 보니 사회적인 활동을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 한 것 같습니다.”

그는 숙명론은 거부하고 모순된 사회에 대한 변화의 희망을 이어갔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業)이란 숙명이 아니라 그 업의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불교관을 확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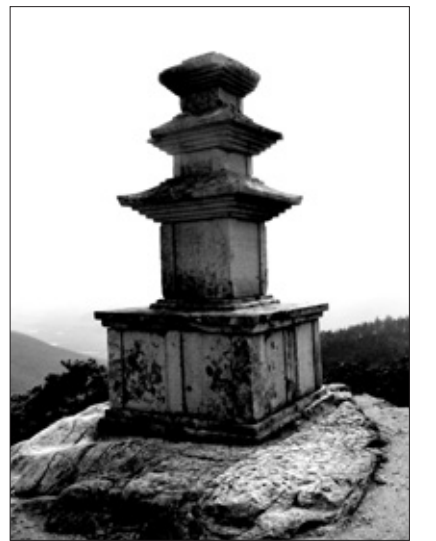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③ 용장사2

미륵정토가 새롭게 구현되다

용장사지 장육존장 옆으로는 불상 한 구가 더 있다. 바위에 조각된 마애불상은 풍만한 얼굴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다. 양 어깨에 걸쳐 내린 옷자락도 넉넉함을 더해준다. 오른손은 무릎 위에 올려 손끝이 땅을 향하고 있으며, 왼손은 배 부분에 놓여 있다.

항마촉지인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석가모니불로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감산사처럼 장육존상이 미륵상이라든 아마타불일 가능성이 더 많다. 신라법상종의 불상조형에 있어서 미륵과 아리타불을 같이 조성하는 양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상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석가여래일 가능성도 있다. 석가 다음 부처인 미륵을 위해 수기를 내리니 석가모니로 여길 수도 있는 문제다.

이런 복잡한 추측 때문에 장육존상 옆에 새겨진 10여 글자의 명문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현재 마모가 심해 그 글자를 알아보기 어렵다. 용장사지



경주 남산 금오봉 정상에서 내려가는 길에 있는 3층 석탑

상적·신앙적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용장사지 뒤편으로 절을 감싸고 뻗은 동쪽 바위 산맥의 높은 봉우리에는 탑이 우뚝 솟아 있다. 금오봉 정상에서 내려가는 길에 처음 만나는 유적이다. 탑은 자연암석을 하층 기반으로 삼고, 그 위에 바로 상층 기단이 있다. 자연암석이 하층 기단일 수도 있고 아래 바위산 전체가 하층 기단일 수도 있다.

용장사지에 남아 있는 문화재는 유가법종의 가르침이 담긴 유산 통일신라 후기 전형적 모습 담겨

사의 부처님들은 태현 스님이 꿈꾸던 정도의 모습을 1000여 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태현 스님의 모습이 용장사지에 남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닌 유가법상종의 가르침이다. 당시 당나라 땅에서 활약하던 원측 대사가 위대한 유가유시계통의 조사로부터 법을 받은 도증(道證)을 이 땅에 귀국한 692년 이후로 서명학과 계열의 법상종이 들어왔다. 당나라에서 법상종은 현장 스님을 중심으로 자온학과 계열의 법상종이 유행했다. 우리나라에는 원측 스님의 맥을 이은 독자적인 법상종이 유행했다.

통일신라시대 정점에 이른 화엄종과 법상종이 모두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흐름을 이룬 것은 700년대 이후 한국불교의 특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일이다. 용장사지에 주석한 태현 스님도 독특한 사상으로 중국에게서 그 사상의 위대성을 알렸다. 용장사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세상에 펼친 신라인들의 사

탑의 탑신(塔身)은 지붕돌과 몸돌을 별도의 석재로 조성했다. 1층 몸돌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2층부터는 급격히 줄어든다. 지붕돌은 밑면의 받침이 각 4단이고 처마는 직선을 이루다가 귀퉁이에서 경쾌하게 들려있다. 탑은 쓰러져 있던 것을 1922년에 재건했다. 하지만 사리장치는 없어진 상태다. 상륜부는 아예 없어져 버려 상태를 알 수 없고, 찰주를 꽂았던 구멍만 남아 있다.

탑은 크지는 않지만 통일신라 후기 석탑의 전형을 보여준다. 탑에도 용장사에 태현 스님이 구현하고자 한 미륵도술정토가 한층 더 새로운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듯하다. 용장공을 오르면 펼쳐지는 이 유적들은 경주 남산의 불국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용장사는 법상종이라는 종파를 통해 신라인들의 도술천이 구현된 땅이 아니었을까.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⑨ - 등장인물 소개 5

하루 500마리 새끼용 먹여치우는 새

지금까지 수미산의 주인은 제석과 그의 경쟁자 아수라, 귀신인 야차, 물을 다스리는 용, 뱀의 머리와 꼬리 그리고 사람의 몸을 지닌 마호르가, 향기를 먹고 사는 건달 파를 소개하였다. 마지막 등장인물인 신비의 새 가루라(鵄羅)는 인도신화에 나오는 상상 속의 동물 금시조(金翅鳥)에서 한 층 발전한 새 중의 왕이다.

서양 신화 속에 등장하는 새의 모습

‘사람이든 사람이 아닌 존재’ 팔부신장 중에서 가루라의 특징은 ‘짐승’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이다. 용(龍) 또한 짐승에 해당하지만 용의 경우 변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루라는 자신의 모습과 정체성을 잃지도 재미나 필요에 따라 쉽게 바꾸지도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루라가 출중한 인물의 화신(化身)이라고 여겨 왔다. 그 예로 인도의 밀교에서는 가루라를 범천(梵天)의 화신이라고 생각한다.

가루라는 몸집이 매우 커서 두 날개의 길이가 336만 리(리)이며 깃털에서는 장엄

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머리 위에 여의주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인도의 가루라에 필적한 만한 공상의 새가 중국에도 있으니 장자(莊子) 소요유편(逍遙遊篇)에 등장하는 대봉(大鵬)이다. 대봉은 하루에 9만 리(里)를 날아간다는 새로써 북해(北海)에 살던 곤(鯁)이라는 물고기가 새로 변한 것이라고 한다.

중국에 불교가 전해진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있으나 바로 남승(南乘)의 중신 악비(岳飛)장군이다. 중국 사람들은 악비 장군을 대봉금시조(大鵬金翅鳥)의 화신(化身)이라고 생각해 왔다. 대봉은 장자에 등장하는 새이고 금시조가 바로 가루라이니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후, 자신들의 영웅을 미화하는데 재빨리 응용한 셈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새는 신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들의 왕이자 올림포스의 주인인 제우스는 독수리, 그의 아내이자 가정의 여신인 헤라는 화려한 공작새, 제우스의 딸이자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는 올빼미가 각각의 신성(神性)을 상



가루라 삽화-김영수

징한다. 이처럼 새는 동양과 서양의 신화에서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중요하면서도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새 중의 왕, 가루라(迦樓羅)의 일생 가루라를 묘사할 때 ‘크기’ 외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식성이다. 왜냐하면 가루라의 주식이 같은 천룡팔부 신장 중 하나

인 용(龍)이기 때문이다. 전설에 따르면 가루라는 매 끼니마다 한 마리의 용왕(龍王)과 500마리의 새끼용을 잡아먹는다고 한다. 이러한 식성은 후에 가루라의 죽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수명이 한정된 가루라는 죽을 때가 되면 허공에서 몸을 여러 차례 뒤집으며 날다가 금강륜산(金剛輪山)의 정상에서 최후를 맞이한다. 그때 저절로 몸에 불이 붙는데 그 이유가 바로 가루라가 그동안 먹어왔던 용 때문이다. 용의 몸에는 독(毒)이 있는데 이 독이 가루라의 몸에 쌓이고 쌓이다가 죽을 때에 가루라의 몸을 태워버리는 것이다. 살아서는 먹이였던 용이 죽어서는 육신을 태워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육신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는 유리처럼 투명한 파란 색 심장만이 남는다고 한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비누독을 완화시키는 삼베세안타올

■삼베세안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월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헵타)사와 주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함유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기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기는 분말은 소박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어트 피해와 수질오염(평숙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헵타사, 주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육상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 x 50cm(대)

■삼베수세미용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삼베샤워타올 - 각 15,000원

· 품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질 - 헵타사, 주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매일이, 냉수마찰, 스포츠마찰, 등산할 때, 원자력시설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삼베수세미용 - 각 4,000원

현불상특별할인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구성: 삼베헵타세탈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불상특별할인세트 30,000원

·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바닥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동글게 피부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생용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향상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않아야합니다.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겨울이철의 심은 버려주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낫습니다.
- 물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낫습니다.
- *향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상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돌진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